

뉴욕,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 교통체증이 심한 뉴욕 도심의 모습. 사진=shutterstock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연방도로청(FHA)이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맨해튼 중심부인 센트럴파크 남단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에 23달러, 그 외 시간에는 17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뉴욕은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9년 혼잡통행료 도입을 결정했다. 당초 뉴욕시의 계획은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을 미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FHA이 혼잡통행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로 확보되는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와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허드슨강을 건널 때 내는 통행료 외에 혼잡통행료까지 내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금지 움직임

미국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미국 전역에 20만개가 존재한다. 맥도널드 등 미국 내 주요 체인점 매출의 70% 이상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나오며, 미국인의 연간 드라이브 스루 이용 횟수는 총 60억회에 달한다.



▲ 차량들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있다. 사진=shutterstock

외식업체가 드라이브 스루에 집중하는 것은 수익성 때문이다. 좌석이 있어야 하는 매장보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크기는 더 작고, 직원도 덜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문제는 드라이브 스루가 많아지면서 인근 교통은 혼

잡해지고, 이로 인한 사고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인근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설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로 애틀랜타에서는 22마일 길이의 보행자 도로인 '애틀랜타 벨트라인' 주변에 드라이브 스루 추가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8월 결정할 예정이다. 벨트라인 주변

에서는 2015년 이후 교통사고로 보행자 1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중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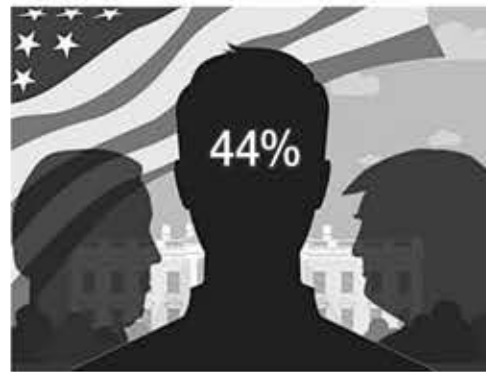
미네애플리스, 뉴저지주 페어레이크, 크레브 레리 등 도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여는 것을 금지했다.

유권자 44%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하면 제3후보 고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제3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BC방송은 전날 미국의 등록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6~20일 조사한 결과,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시 제3의 무소속 후보 지지를 고려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긍정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제3후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 제3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유권자가 많다. 일러스트=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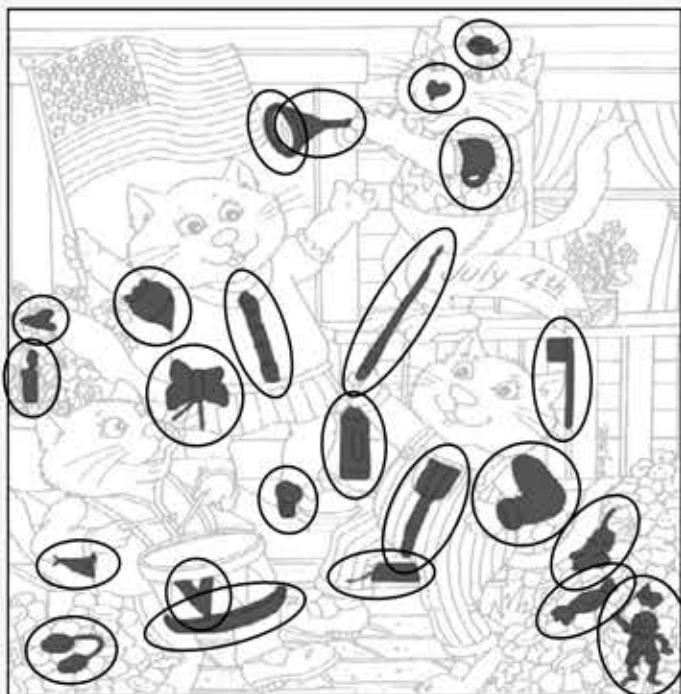
민주당 지지층의 45%가 제3후보 지지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비율이 34%에 불과했다.

히스패닉 유권자(58%)와 흑인(52%), 18~34세의 젊은층(57%), 지난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한 진보층(55%) 사이에서 특히 제3후보론이 우세를 보였다.

NBC는 "다만 선거가 임박하면 실제 이타표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결을 벌인 2016년 대선 당시 3월 같은 조사에서 46%가 제3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밋 롬니가 맞붙은 2012년 대선 당시 4월 조사에서도 40%가 제3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개	회	2식		3만	수	무	4강
기		민		년			설
일		5지	6동	설		7개	량
8식	9용		행		10유	망	
	11광	산		12입		13신	14동
15수	로		16좌	담	17회		고
평			우		고		동
18선	견	지	명		19담	벼	락